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오늘 18일 오후 2시 연준에서 이번 달 금리 정책을 결정했습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금융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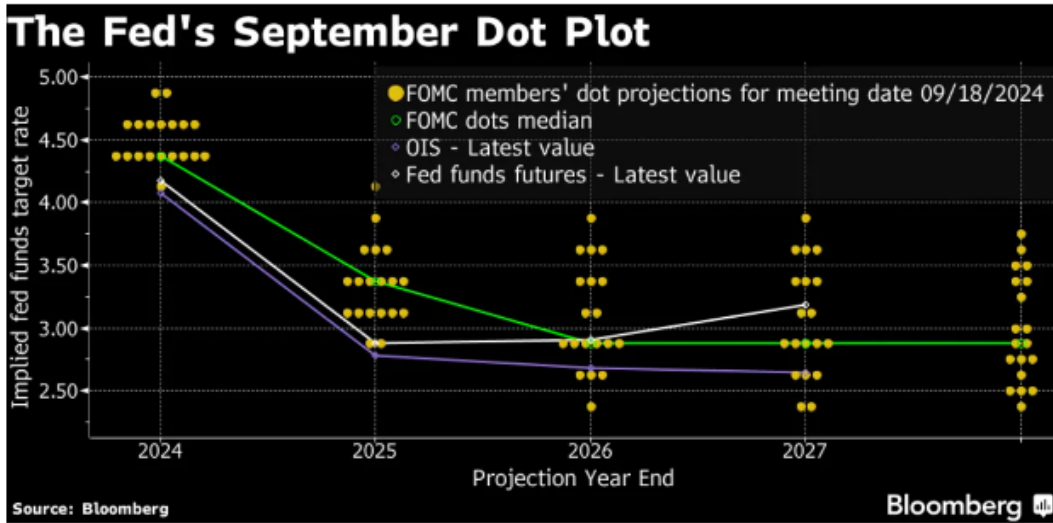
- **Bloomberg: 연준, 0.5% 금리 인하...경제 보호 차원에서 과감한 조치**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Fed Cuts Rates by Half Point in Decisive Bid to Defend Economy

연준, 0.5% 금리 인하...경제 보호 차원에서 과감한 조치

- 연준 공개시장위원회는 11대 1로 오늘 수요일 기준금리를 0.5%포인트 인하해 금리 폭 범위를 4.75%-5.0%로 했다. 4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.
- 금리 전망 점도표와 관련해 중앙값은 올해 말까지 금리를 1%포인트 인하 즉, 향후에 두 차례 0.25%포인트 인하하거나, 한 차례 0.5%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. 19명의 참석자 중에 9명은 0.75% 이하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내년도 중앙값 금리 전망치는 6월의 4.1% 전망치에서 이번 전망은 3.4%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했다. 즉, 내년에 4차례 각각 0.25%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- 이날 오후 2시 발표 성명서는 “위원회는 금리 목표를 2%로 되돌릴 뿐만 아니라 최대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강력히 노력하겠다”라고 발표했다.
- 또한 성명서를 통해 위원회는 2% 인플레이를 목표로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. 고용과 인플레이 목표를 이루는 리스크는 거의 균형이 잡혀 있다고 성명서에서 언급했다.
-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으로 정책 기초를 적절히 재조정하면서, 성장이 완만하고 인플레이가 2%대로 지속해서 둔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을 강제로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. 또한 파월 의장은 0.5% 금리 인하 속도를 정책 결정자들이 계속 이어갈 것으로 가정하는 것을 경계했다.
- 그는 “실업률 4.2%는 매우 건강한 지표이다. 우리의 계획은 2% 인플레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다.”라고 말했다. 실업률의 고통스러운 증가 없이 물가 안정을 이루는 것이 연준의 목표다.



Bloomberg 기사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